매일 INDEX

3면
고향 전북의 품에 안긴 파독 광부 · 간호사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음 8월 7일) 제3584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바이오산업 육성 전초기지 독일에 문 열다

'전북자치도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 개소

KIST 유럽연구소와 협력 바탕으로 프로젝트 공동 추진
최신 기술 · 연구 방법 학습해 도내 연구개발 현장에 적용
바이오 ·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JB-GBC 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선진 바이오기술을 도내 기업들에 전파해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 발전가능한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가 독일에 문을 열었다.

또, 모빌리티와 바이오분야의 독일 글로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북에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단체장의 투자유치설명회도 직접 펼쳐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바이오기술협력센터(JB-GBC 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경제교류지역의 확장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 등 대표단을 비롯해 KIST 유럽연구소 김수현 소장과 프라운호퍼 연구소 실비아 베그너 그룹장 등이 참석했으며, 독일 현지 바이오 연구 및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 바이오 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JB-GBC 센터 개소를 통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2월 협약을 맺은 KIST 유럽연구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전북 지역의 바이오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바이오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KIST 유럽연구소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북의 바이오 연구원과 전문가들이 유럽의 선진 연구 환경에서 최신 기술과 연구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전북 지역의 연구개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테크노파크가 JB-GBC 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 등 전북자치도 대표단은 이날 또 기업 혁신지원기관인 East Side Fab에서 독일의 유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럽 최대의 철강기업으로 자동차, 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인 티센크루프(ThyssenKrupp)의 토르스텐 슝크 자동차 프레임 혁신센터장, CISPA 헬름홀츠 사이버보안 연구소의 알렉세이 베니쉬 국제협력담당 이사, 자알란트주에 본사를 둔 전기설비분야 글로벌기업인 하거그룹의 요하네스 하욱 이사, IoT(사물인터넷) 기반 계측기 회사인 Zenner International의 장필립 엑스너 기술총괄이사, 그리고 세계적인 도자기 메이커인 빌레로이 앤보흐사의 국제협력담당이사 등 50여 개 기업 임직원과 연구소, 정부기관 임직원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 지사가 직접 30여분에 걸쳐 전북자치도의 주력산업 분야인 수소와 탄소산업,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핵심전략산업의 추진 상황은 물론 친기업정책인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설명회가 개최된 독일 자를란트주는 프랑스 및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 내륙지역 교통의 요충지로, 특히 지난 1873년 세계 최초의 현대식 제철소가 탄생한 곳이며 석탄과 철강업 중심에서 현재는 반도체, 전자, 컴퓨터, 바이오 분야를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경제도시이다.

김 지사는 "전북에는 셰플러코리아를 비롯 바스프, 콘티테크플루이드 등 다수의 독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와 자를란트주의 주력산업분야가 유사한 만큼 기업간 교류협력 및 상호투자를 증진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고 참석자들의 관심을 더욱 유인했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위르겐 바르케 자를란트주 경제부장관은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독일 기업들이 전북자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전북자치도와 독일 기업인, 정부관계자들이 활발히 교류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전북자치도 대표단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IFA 2024에 참가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개인 건강 모니터링 장비,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의 혁신적인 제품과 전북 바이오 산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신 기술 트렌드와 바이오 융합제품을 직접 확인했다. /이만호 기자

과학 · 기술의 만남
전북과학축전 개최

전북과학기술인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

도내 청소년들의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축전이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과 보훈누리공원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과학축전은 도내 100여개의 연구기관과 학교,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과 기술의 만남,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과학축전은 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도내 과학기술 관련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은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의 환영사, 문승우 도의장의 축사, 제4회 전북과학기술인대상 시상, 개막 퍼포먼스, 과학 체험부스 투어로 축제가 시작됐다.

과학축전 개막식에서는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권기현 한국식품연구원 디지털팩토리 사업단장 △김대혁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 △조민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장 등 3명을 선정해 메달과 상패가 수여됐다.

올해 과학축전에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으며,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찾아가는 과학축전을 고창군, 부안군 등으로 확대 · 운영하기도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새로운 미래 전북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길이다"라며, "이번 축전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 쉽게 다가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신항만, 한류테마 크루즈 기항지로

새만금청,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전략 제시… 군산근대역사자원 등 활용 관광루트 조성 등 주내용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신항만이 2026년 하반기 개항함에 따라,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크루즈 산업에 대해, 한류테마를 주요 컨셉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 크루즈 시장은 코로나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 크루즈(17만 톤급 이상) 기항으로 4~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지난 6월 착수해, 이달 6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과제와 세부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유람선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계 크루즈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새만금 크루즈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류테마를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자원 등을 이용한 관광루트 조성, 둘째 K-컬쳐인 한식, 한복, 한옥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로 관광 매력도 증대, 셋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새만금 크루즈 관광 개발 및 컨벤션센터 조성 등이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새만금 국제 크루즈 터미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향, 규모, 도입기능 설정, 사업비 추정 등의 기본구상(안)도 논의했다.

특히, 입국심사절차(CIQ)를 간소화하고, 크루즈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갱웨이(배와 육지사이 트랩) 등을 현대화하여 관광지 체류시간을 증대하고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Real Fresh
참프레
CHARMFRE

동물복지 닭고기
〝가족의 건강에 답하다〞

"참! 착하게 키웠습니다"